목포대양산단에 서남권 최대 물류창고

최첨단 스마트 냉·온저장 시설 내년 본격 가동…농수산물 저장·보관 문제 해소 기대

목포대양산단에 전남 서남권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가 들어선다. 농수산물 집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취약했던 저장·보관 문제가 해소되면서 지역의 물류 유통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수산물류 전문업체인 (유)서남국제물류와 대양산단 산업용지 3필지 3만3768㎡에 대한 분양계약을 했다.

(유)서남국제물류는 연면적 6만2248㎡에 지상 3층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 물류창고(냉·온 저장)를 올해 안에 완공해 내년 초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설은 수산물과 지역농산물 등 비축 물자를 보다 저렴하고 신선하게 보관하고, 유통·판매를 알선하는 물류 서비스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목포시는 농수산물의 집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저장·보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전국 어업 생산량의 56%에 달하지만 변변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냉동·냉장창고, 유통시설, 가동시설 등 기반시설이 없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원물 상태로 유통시키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목포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대양산단에는 김 가공업체들의 입주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남권 최대 물류창고가 들어설 목포대양산단.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의 물류유통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저장·보관 문제가 해소되면서 가격과 공급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대양산단 완전 분양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양산단은 (유)서남국제물류의 산업용지 매입으로 전체 분양률은 98%로 상승했다. 현재 대양산단의 총면적 154만5007㎡ 중 미분양 용지는 3필지 2만475㎡로 이 중 9900㎡는 계약이 진행되면서 2필지 1만485㎡(4500평)만이 남겨두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산 수산물 '해양치유 밥상' 보니

해조류 떡갈비·톳밥·김장국·해조류 샐러드 등 다양

해양치유밥상.

청정바다 완도는 수산 1번지로 전복과 해조류, 광어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완도군은 수산물을 활용해 신선하고 건강한 맛을 담은 음식을 만들어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해양치유밥상'을 개발했다.

해양치유밥상은 전복 내장과 톳을 넣은 전복 해조류 떡갈비와 전복 내장 소스, 톳과 미역, 색깔보리를 넣은 색깔보리 톳밥과 제철 생선찜, 김장국, 해조류 샐러드, 해조류 무쌈은 물론 완도 과일 음료 등 완도에서 나는 식재료로 구성했다.

군은 해양치유밥상이 완도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올해 준공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와 외식업체에 보급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조류로 만든 젤리부터 톳 국수, 다시마장아찌, 다시마 전복젓갈, 전복장, 전복 만두, 말린 전복 절편, 전복 장조림, 전복 스테이크 등 가공품도 개발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전복 등 수산물은 청정바다에서 자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므로 다양하게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도시가스,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세요"

차상위계층, 저녹스 보일러 1대당 60만원·일반 가정 10만원 지원

해남군이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확대를 위해 지역민들에게 설치비를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녹스)이 적게 발생하며, 열효율이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녹스 발생율이 173ppm에서 20ppm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최대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저녹스 보일러는 총 26대로, 일반가정 24개소와 저소득 가정 2대가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중 저녹스 보일러 설치 희망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다. 지원금은 일반가정에는 1대당 10만원이며,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에는 1대당 60만원의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다.

저녹스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가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군 환경교통과(061-530-5642)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오래된 보일러를 우선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 매간당고택서 1박2일 인문학 여행

군, 주역으로 풀어 본 고택 효의 비밀 등 10월까지

영광군이 전남도종가회(회장 윤형식) 영광지부와 함께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고택 일원에서 '주역으로 풀어 본 효의 비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광군은 전남도종가회 영광지부와 함께 매간당고택 일원에서 '주역으로 풀어 본 효의 비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광군 제공〉

문화재청 공모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16일 시작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총 10회, 1박 2일로 운영된다. ▲주역으로 풀어 본 매간당 고택 효의 비밀 ▲보자기 인문학 강연 ▲예스럽게 하루 살아보기 ▲농악체험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군남면 동간리 동편마을에 위치한 매간당고택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으로 미인 자손이 태어난다는 매화낙지(梅花落地) 명당 터에 자리 잡고 있다.

민가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동 125칸을 자랑하며, 용 문양을 한 삼효문이 솟을대문으로 우뚝 서 있고, 초가 호지집 3채가 집 밖에 남아 있다. 또한 조상을 모시는 사당과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당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거나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전라남도종가회 영광지부(ssw1071@naver.com), 인스타그램 #매간당고택체험 검색 또는 영광군청 문화관광과(061-350-5225)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멈춘 시간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매간당의 멋진 솟을대문 삼효문과 토담·돌담·꽃담 등 담장, 문창살 등의 문화재적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군, 치매 극복 온라인 걷기 행사

'워크온' 앱 통해 24일까지 12만보 완료시 상품권 증정

진도군이 '치매 애(愛) 사랑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실시한다.

비대면으로 모바일 걷기 플랫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치매 극복 기원과 치매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 설치 후 '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 후 '한마음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 챌린지를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챌린지는 오는 24일까지 12만보를 걸으면 완료되며, 목표 걸음수를 달성한 참가자 선착순 100명에게 진도아리랑상품권(2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는 치매 예방 실천 수칙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며 "치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치매가 있어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예방 관련 문의는 진도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61-540-69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군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무안군이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2년 무안군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교육희망자는 누구나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달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군은 과정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체험과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에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치유농장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치유농업 과정을 개설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